

【서 평】

## 기 소르망, 『Made in USA: 미국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선』

민유기, 조윤경 옮김(2004, 문학세계사)

정 향 진

(서울대 인류학과)

이 책은 ‘문명 비평가’로 활동하는 기 소르망의 최근 저작으로 미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총체적 비평서라고 할 수 있다. 부제가 ‘미국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시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 특유의 논법으로 새로운 느낌을 있다고 해도 좋겠다. 일반 독자와 전문 학자 모두 소르망의 해박하고도 시원스럽게 예리한 해설에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 이는 이 책이 대중적이면서도 학술적인 논의의 깊이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미국에 대한 문명 비평류의 저작들이 프랑스인들에 의해 유난히 많이 씌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영국인들이 미국 사회를 영국 사회의 파생품 정도로 간주하는 데 반해 프랑스인들은 이 ‘새로운 공화국’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프랑스인들은 미국인들과 유럽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앵글로색슨 전통의 바깥에 있어 비교적인 시점을 가지기에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소르망 스스로 1장의 끝에서 “미국에서 미래를 찾아내는 수많은 프랑스 탐험가들”의 계보를 들고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탐험가”는 단연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다.<sup>1)</sup> 토크빌은 1830년대의

---

1)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I, II, 임효선, 박지동 옮김, 『미국

미국 사회에 대한 논평을 통해 당시의 미국뿐만 아니라 미래의 미국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였는데,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빛바래지 않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소르망은 토크빌에 대한 현대적, 대중적 주석서라고도 할 수 있다. 토크빌은 그의 저작에서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미국인들을 움직이는 두 가지 동인으로 보고, 이 둘 사이의 잠재적 긴장에도 주목하였다. 소르망에 따르면,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이 현대 미국 사회에서 “두 문화 간의 전쟁”으로 나타난다. 또한 토크빌이 그러했듯이 소르망 역시 미국에서 정치권력보다 사법 제도가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보고 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토크빌이 19세기 전반기에 나름대로 “세계의 미국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였는데, 소르망은 세계화=미국화의 가능성(혹은 현실)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대담하게 말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소르망을 토크빌의 주석만으로 보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토크빌이 흑백으로 된 장중한 다큐멘터리라면 소르망은 짙막한 일화 여러 개가 이어지는 총천연색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소르망의 “새로운 시선”은 진화론, 낙태, 동성애, 우울증, 영성(靈性), 사형, 총기, 할리우드, 힙합, 사이버문화, 라디오, 기부, 제국주의 등 현대 미국 사회의 매우 다양한 면면을 훑어낸다. ‘문명 비평가’답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눈썹을 곤두세울 복잡한 논의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편이다. 대신 독자와 함께 조각그림 맞추기라도 하듯이 빈 곳을 지적하고, 그 곳을 메꾸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뜻 너무나 다양해서 한 책에서 다 다루기가 어렵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한번에 “깨뚫어지는” 경험을 독자들은 하게 된다. 꿰뚫기 위한 주요한 도구가 바로 “두 문화간의 전쟁”이라는 관점이다. 그는 ‘비행기 창가’에서라고 제목을 붙인 1장에서 현대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힘을 1960년대의 “반문화”와 1980년대의 “반혁명”이라고 요약하고, 책의 나머지에서 구체적인 사례들과 장면들을 통해 “반문화”와 “반혁명”이 어떻게 대립하고 갈등하는지, 그리고 그 대립과 갈등이 어떤 식으로

미국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문화 혁명”을 이끌었던 1960년대 세대들은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미국사회의 이상, 즉 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다(“자유주의자”가 실은 평등주의자인 것이다! 소르망 역시 이 역설을 꼬집고 유럽적 의미의 자유주의자는 미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불린다고 잠깐 지적하고 있다.). 반면 “반혁명 문화”를 주도했던 1980년대의 보수주의자들은 또 하나의 이상, 즉 자유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 정도까지 읽고나면 미국을 경험했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르망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르망은 끝까지 읽어볼 만하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대한 이야기-이는 아주 심각해버릴 수도 있는 주제이다-를 맛깔스럽게 차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르망이 심각한 이야기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10장 ‘제국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국인들의 모습에 대해 담담한 어조로, 그러나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소르망이 “친미” 성향이라고 의심할 “반미” 독자들은 이 장에서 아마도 가장 불쾌한 기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이 “미국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말이다. 그러나 한국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성급한 반미에서 벗어나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고찰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자라 있지 않나 한다. 소르망의 지적처럼 미국 문명은 현대 세계의 어느 사회라도(미국 자체를 포함해서) 직면해 있는 하나의 ‘문제’ 혹은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